
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	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		
책임자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신진창 과장 (2156-9850)	담당자	고상범 서기관 (2156-9861) 양병권 사무관 (2156-9853)	
배 포 일	2016. 2. 19. (금)	배포 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	총 2매

## 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2016년 제3차 「금융회」 개최

### -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의

-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중에 있음
- 이에 따라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임원, 학계,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
- \*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주 금요일(조찬)마다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인 「금융회」를 운영중

#### < 제3차 「금융회」 개요 >

■ 일시/장소 : 2016.2.19.(금) 07:30 ~ 09:00 / 금융투자협회 23층

#### ■ 참석자

- 여신금융협회, 금융연구원, 한국신용카드학회, 전업계 8개 카드사(롯데카드, 비씨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KB국민카드, 현대카드)

- 참석자들은 최근 카드업계를 둘러싼 시장·고객·기술·제도 측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,
  - 카드업계가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·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
  - 특히, 카드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장 진출과 지급결제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카드시장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장 등으로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카드업계와 공유하고,
  - 정보통신기술(ICT) 등 거대한 기술변화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면, 변화하는 환경이 카드사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
- 또한, 카드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
  - ① 과도한 마케팅 위주의 경쟁보다는 기술경쟁에 집중하여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카드의 기능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
  - ② 강점이 있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수업무를 적극 발굴
  - ③ 우리의 선진화된 신용평가 인프라와 지급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
-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드립니다